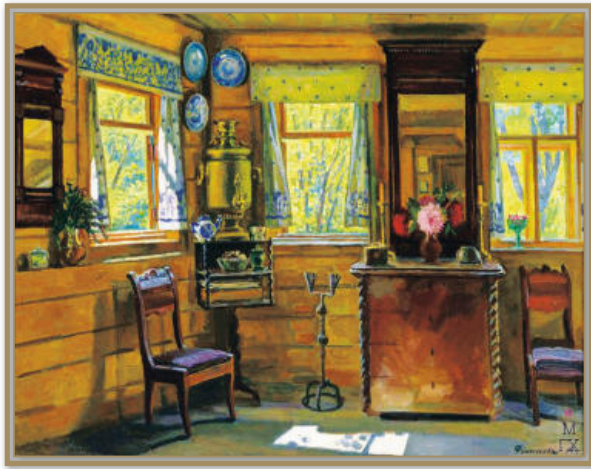


■ 그림 여행



정오의 집안
(The Noon in the House c. 1995)

미아다 피노제노바 (Miada Finogenova)

(캔버스에 유채, 80 x 60 cm, 러시아 구상 미술관)

러시아 농가의 내부를 그린 그림이다. 그리 크지 않은 목조 건물 집안에 벽을 둘러싼 창문으로 정오의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 방안은 소박한 가구들로 장식되어 있다. 벽시계, 푸른 접시들, 꽃병, 촛대, 나무의자, 러시아 주전자 사모바르, 거울이 붙은 장식장, 그리고 파란 실로 수놓은 커튼 등, 바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같이 손때 묻은 정겨운 물건들이다.

창밖에는 푸른 숲이 보인다. 연한 녹색의 나무들이 집을 에워 싸고 있다. 평화롭고 조용한 시골 농가의 정오, 시간은 정지되어 있다. 사람은 어디 있을까? 바로 이 집안에 있다.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지난주 갑작스레 습격한 지진을 겪고 놀란 마음에 이 그림이 무척 마음에 다가왔다. 한적한 시골생활을 보여주는 그림이라 마음에 평화와 안정을 주었기 때문일까? 아니, 도리어 그 반대이다.

뜻하지 않은 재난이나 이변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다면 우리가 잃을 것은 무엇일까?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다. 작은 것들로 가득 찬 일상이다. 내 역사가 담겨 있고, 내 취향과 내 필요를 상징하는 물건들, 이 정오의 집안에 보이는 저런 잡다한 물건들과 거기에 얽힌 사연들이다. 그것들이 다 파괴된다고 가정하면 크나큰 상실감이 밀려온다.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더 그러하다.

더없이 평화롭고 잔잔한 한 쪽의 그림이 편치만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물질의 공허함과 덧없음을 초월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득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사람이 남는다면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이룰 수 있으리라 다짐한다.

《김동백》

■ 신간



너라는 생활



등단 8년차, 30대 여성 소설가 김혜진의 작품은 동시대 '젊은 작가'의 작품 경향과 다른 데가 있다. 페미니즘과 쿼어 이슈로 대표되는 최근 한국문학의 '트렌드'에서 조금 비껴나 그 이슈들을 포함하되 세대와 시대의 문제, 구체적으로는 노동과 주거의 문제를 보다 핵심에 두고 쓴다. (중략) 첫 소설집 출간 이후 꾸준히 발표한 단편 여덟 편을 모아 두 번째 소설집을 펴낸다. 그사이 펴내고 호평받은 중·장편들의 씨앗이 된 인물과 모티프가 편편에 껴진하게 담겨, 지난 4년 작가가 관심 갖고 귀 기울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시대/세대가 마주한 문제가 무엇인지 거울처럼 비춘다. (인터넷 교보문고의 '책소개' 중에서)

■ 김혜진 지음 | 문학동네 펴냄 | 256쪽

농수산마트 풍요롭고 행복한 **가을** **귀한분께 사랑을 전하세요!**

거문도 해풍속

숙게떡 / 송편

\$14⁹⁹

돌자반

밥반찬, 간식 등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고소하고 바삭한 돌자반

4 For **\$9⁹⁹**
\$19⁹⁹ (대용량 500g)

광천김

지금 막 들어온 신선한 김!

\$14⁹⁹ 대용량 식탁김 12봉
\$24⁹⁹ 2Box 사시면

봉화 미주 직판장

청량산 김치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재료 **한국의 맛을 담았습니다**

단감말랭이

산지에서 직접배송되어 더욱 맛있는

\$8⁹⁹

모싯잎 찐보리굴비

\$14⁹⁹ 1마리
\$69⁹⁹ 5마리

봉화 청량산 포기김치
열무김치, 동치미, 갓김치

\$25 5Kg **\$45** 10Kg

\$100 이상 구매시 동치미 4Kg 무료증정

농수산마트 T.714-403-1230

1811 W Commonwealth Ave. #M, Fullerton, CA 92833 (일요일 휴무)

Commonwealth 은행교회
Birkhurst 91
5